

덕진공원에 무료 와이파이 ‘뽕뽕’

전주시,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 관광명소 정보 제공 스마트관광 앱도 개발

전주시 덕진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앞으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덕진공원 일대에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WIF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 사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정보화기기를 활용해 관광정보를 얻

는 개별관광객(FIT: Free Independent Tour)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 덕진공원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 와이파이 존이 구축되면서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관광객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덕진공원과 임실 치즈테마파크, 김제 벽골제, 고창 읍성 등 전북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앱도 개발했다.

스마트관광 앱은 비콘(근거리 무선 통신장치)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안내와 GPS 위치 기반 서비스, 포토존 촬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번 무료 와이파이 존 구축과 관광 앱 개발로 방문객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져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덕진공원으로 유입돼 관광 활

성화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덕진공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수준 높은 관광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광 이벤트 활성화와 홍보에도 적극 나서서 덕진공원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간담회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한옥마을 여러 문화시설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최명희문화관과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최근 문을 연 한옥마을역사관 등 전주한옥마을 내 위치한 주요 문화시설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도시관광해설사, 통역안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문화시설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체험 프로그램 방문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과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도시관광해설사들도 참석해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소개하는 해설코스 신설과 문화시설들을 체험할 수 있는 동선, 시간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채규남 기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시민 안전·생명보호, 불편 해소를 위해 7일 익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정현을 시장과 이상주 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려기사 7면>

전주시 진북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진북동 진북문화마당에서 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장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김영숙 전임위원장과 배익환 신임위원장의 이·취임식은 지역구 시의원, 유관기관, 자생단체장 등과 지역주민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1부는 전임 김영숙위원장 등의 공로패 전달 및 이임사, 축가가 있었고, 2부는 신임 임원소개, 취임사 및 단체 기념 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배익환 신임위원장은 “전주시에서 제일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채규남 기자

육군 35사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12일~23일까지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 발굴 앞서 개토식 가저

육군 35사단은 오는 12일부터 23일 까지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굴 지역은 국군 11사단과 8사단 등이 호남지구 공비토벌 작전(1950년 10월~1951년 4월)과 남부군 토벌작전(1951년 12월~1952년 3월)을 펼쳤던 곳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 지역에서 유해 2구를 포함해 장구류, 탄피 등 400여 점의 전투유물을 발굴, 개토가 모아지고 있다.

유해 발굴에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35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여하며, 발굴된 유해는 임시대대 임시 봉안소에 안치 후 서울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운구할 예정이다.

사단은 유해발굴에 앞서 이날 순창군 쌍치면 충혼탑에서 6·25참전용사, 지역기관장, 보훈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발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식을 가졌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은 6·25전쟁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한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보호사업이다.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시작해 사단은 2006년부터 진안 운장산, 임실 회문산, 무주 덕유산, 정읍 내장산 일대에서 유해 25구를 발굴했다.

사단 관계자는 “선배들의 유해를 사당하는 유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유해발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전북지역 미투 가해자 4명 지목

대학교수·극단 대표·인권운동가 등... 경찰 내사 착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며 전북지역에서도 4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대학교수, 극단 대표, 인권운동가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연극배우 송원(31·여)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1월 당시 활동하던 극단 ‘명태’ 대표 최경성(50)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됐다.

최 대표는 언론보도 직후 “나로 인해 상처 받은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한 대학교 사회관계장서서비스(SNS)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A씨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2013년 1학기 A씨 강의를 들었다. A씨는 걸으며 손을 잡고, 워크숍에 함께 가서 ‘방은 하나만 잠자고 말했다’면서 ‘불쾌함을 연락을 피했다’며 ‘내가 너 성적 뭐 했을 거 같냐’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전주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B씨는 여제자 여러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일에는 전북 한 극단의 여배우가 극단 대표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여배우는 “C씨가 2012년 12월 5일 술자리가 끝난 뒤 모텔로 나를 끌고 가 성추행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가해 지목 남성 4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투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뉴스스

전주시,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리 교육

전주시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담당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과 정보화 사업 관련 운영업체 직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했다.

교육은 각종 보안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신속하게 사이버 보안위기에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보안 동향 △용역사업 수행 보안관리 절차 △개인정보 위·수탁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자체 보안정책과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전산실 등 통제구역 출입에 대한 준수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해 안내했다. /채규남 기자

‘금품 훔치려고 열어 보니 경찰차’

60대 차량털이 구속영장

삼동 한 주택 앞에서 잠복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40분께 한씨는 차신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인 경찰의 차량인 줄 모르고 절도행각을 벌이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한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재범이 우려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삼민 기자

잠복 중인 경찰의 차량을 달려던 60대 현정에서 긴급체포됐다.

완산경찰서는 7일 절도 혐의로 한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원룸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550만원을 훔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일 거주지인 중화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